

호암미술관 20돌 기념 한국미술 명품전

국보·성보문화재 등 160점

연말까지 ... 주말엔 전시작품 설명도

교과서에 실린 문화재를 비롯해 국보급 불교공예와 조각, 사경작품 등 불교와 한국전통미술의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삼성문화재단 호암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한국미술명품전'이 12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열 호암미술관에서 시작돼 12월 31일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 계속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보 32점과 보물 38점 등 모두 160여점이 선보인다. 이 중에는 불교 공예와 조각 29점, 전조과 사경 6점, 서화 23점, 고본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과 토기 55점, 청자 24점, 분청사기 16점, 백자 35점 등이 포함돼 있다.

불자들이라면 1층에 마련된 '불교미술실'에 가장 발길이 오래 머물 것 같다. 아름답고 화려한 불상과 탘, 불화, 사경작품 등 쉽게 접하기 힘든 걸작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하나의 커다란 광배(光背)에 본존불과 좌우보살상을 조각한 형태의 삼존불(三尊佛)로 현존하는 같은 형식의 불상 중에서 가장 큰 '금동무량수삼존불입상(국보 85호)'에서는 유연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우리

나라 화엄종의 근본경전인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권31) 국보 215호'은 표지에 금은색의 꽃무늬가 묘사돼 있어 굳이 제목을 보지 않더라도 금방 찾을 수 있다. 아래층 기단의



◁김푸른 종이에 금은가루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쓴 두루마리 형태의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 권31' (국보 215호)

각 면에 등근테를 두른 연꽃잎이 새겨져 고려시대 석탑 양식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금동대탑(국보 213호)'을 유심히 보면 머리장식의 일부가 사라져 현재는 5층의 탑신만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금동여래삼존상(국보 134호), 아미타삼존도(국보 218호), 금동관음보살입상(보물 927호), 지장도(보물 784호) 등도 눈여겨 볼 만한 성보문화재들이다.



◁높이 156cm의 큰 규모로 머리장식의 일부가 사라지고 5층의 탑신만 남은 금동대탑(국보 213호)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서산 개심사에 갔다. 온갖 나무들마다 새싹이 돌아나, 봄 햇살 아래 빛나는 풀판은 마치 레몬 빛이 감도는 연초록 바다 같았다. 동구 입구에는 '개심사'와 '제심동(洗心洞)'이라 적힌 입석 두 개가 나란히 서서 일주문을 대신하여 맞이 해주었다. 숲 사이로 난 돌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 마침내 절 입구에 다다르니, 바깥편에 있는 긴 사각형 연못이 손짓하며 불렀다. 연못 안에 놓인 바위에 파인 글자를 유심히 살펴보니 '濯池(거울못)'라고 적혀 있었다. 무얼 비취보라는 것인가? 법당으로 올라가려면 연못을 가로지르는 통나무 다리를 건너야 한다. 혹시 떨어질까 조심하며 좁은 다리를 건너는데, 마침 물 위에 비친 내 그림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다리를 건너다 제 그림자를 보고 깨달음을 얻어 지었다는 동산양계 선사(隨水觀影)의 시를 떠올렸다.

결코 남에게서 찾지 마라
아득히 나와 떨어진다
나 이제 홀로 나서니
가는 곳마다 '그(影)'를 만난다
나 아닌 '그'가 바로 나이고
지금 나는 '그진짜나'가 아니다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게 내 얼굴이다

동산의 '물그림자'

지금 나는 그가 아니다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게 내 얼굴이다

그 자리에
가만히 두드리
려 앉아 물
위의 그림자
를 보며 말을
건넌다. '내
그림자야, 너
는 내 것인
데, 나는 네
것이 아니구나'

나." 그런데 문득 뒷덜미에 어떤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의 입자가 내게 말한다. "내 그림자야, 너는 내 것인데, 나는 네 것이 아니구나." 뒤돌아보니,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나도 누군가의 그림자인가? 서산대사는 임종 때, "필십년 전에는 '그'가 나이며, 이제는 내가 '그'로구나." 하는 말을 남겼다.

연못을 건너 계단을 올라서니 축대 위에 지어진 중부의 기둥이 특이했다. 무거운 종과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이 하나 같이 휘둘린 나무들이었다. 올라오면서 길가에서 보았던 휘어진 소나무를 모양 그대로였다. "기둥은 곧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켤 과격적인 작품이었다. 안양루를 끼고 해탈문을 지나 안마당으로 들어서니 고종스런 심경당의 기둥과 대들보들도 한결 같이 굽은 나무들로 지어져 있었다. 그 기둥과 벽면과 대들보와 문짝과 창문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절묘한 조화와 비례의 콤포지션은 소박한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절 안팎을 둘러보니 유난히 꽃나무가 눈에 많이 띄었다. 자목련과 흰동백은 꽃잎을 필고 있었고, 그 유명한 왕벚꽃은 꽃잎을 타 떠뜨리는 참이었다. 뒤편에는 작약이 계절의 여왕 5월을 기약하며 속속 자라고 있었다. 극락정도로 만들어는 열원에서 이 모든 건물을 배치하고, 연못을 파고, 철마다 번갈아 꽃피우는 나무들을 골라 심은 디자이너의 심성과 미적 감각을 생각하니 잔잔한 감동과 고마움이 바람에 날리는 벚꽃비처럼 가슴을 적셔왔다.

■문학평론가

문화 담당 = 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방향 즉 우주를 향해 달리는 말을 표현한 '우주의 탄생'



◁속구공과 '공'을 해석적으로 표현한 '공을 들고온 달마'

달 마 야 속 구 하고 놀자. 달마 대사가 속 구를 하면 어떤 모습일까.

원하는 '공-다르마 전'을 기획한다. 전시되는 작품들은 월드컵을 상징하는 속구공과 달마 그림을 그린 것으로 '해가 달마에게 바치는 공', '달마가 공을 든 까닭은', '공을 들고온 달마', '공을 깨고 나온 달마' 등 1백여점이다.

월드컵·달마 주제 - 공·다르마전

동성스님 100점 작품... 한·일서 전시

일 월드컵 대회를 맞아 '월드컵과 달마'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한국과 일본 미술대전'에 초대작가로 작품을 출품하며 월드컵의 평화이념과 구도정신이 인류의 이상세계를 추구한다는 점에 영감을 얻고 1년에 걸쳐 기획했다.

동성 스님은 "제상의 모든 것이 인연법에 따라 출연히 모이고 흩어진다"는 연기론의 '일체개공(一切皆空)'의 진리를 속구공을 예로 들어 표현했다"고 작품을 설명한다. 5월21일부터 6월9일에는 일본 교토 고테사에서 전시회가 열린다. 02-736-2585

말스재 '吉祥圖' 200점 전시

지형스님 1일부터 롯데호텔서

말(馬) 그림 이외에도 협천 비상을 상징하는 '독수리'와 무병장수를 염원하는 '도화도(桃花圖)' 등도 선보여 작품 영역이 다양하고 넓어졌다. 평가를 받고 있다.

지형스님은 "원래 말은 힘이 강하고 생명력이 갖가지 변화에 싸여 고병은 중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길 발원하고 자 말을 소재로 한 그림을 주로 그려왔다"고 말했다. 한편 지형스님은 임오년 말의 해를 맞아 2월 인사동 경인미술관 특별초청으로 길상의 아름다움, 천마도전'을 열었다. 02511-6210

서울 판화미술제 28일까지

강행복 씨 등 중진·신인작가 작품 선봬

한국판화미술진흥회는 20일부터 28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 전관에서 '서울판화미술제'를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원로 판화작가 황규백씨를 비롯해 불교판화작가로 활동해온 강행복씨나 이태 판화공방 대표, 임병중, 박선주, 리차드 스페어, 아르망, 크리스토프 등 국내외 중진작가와 신인작가 2백여명의 작품이 선보인다.

심곡암 4계 카메라에 담아

전제우 씨 사진展

불교사진작가 전제우씨의 두 번째 개인 사진전 '심곡암 이야기'가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북한산 심곡암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심곡암의 사계절과 '참선', '기도'를 주제로 한 수행자들의 정진 하는 모습 등 41점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사진은 '송림(松林) 사이의 해돋이'.



◁불교판화작가 강행복씨의 달마전(達摩傳)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손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의 종류별 모형가등이 있습니다. * 각 사양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시공원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종 등 신제품 • 실용신안 등록 • 의장출원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 연등용 전선케이블 (특허 제122168호) / 골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534호)와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 792-6288, 794-4055
 찬덕 홈페이지: www.chanduk.com
 경기도 아남시 준곡동 180-1 e-mail: chanduk21@hanmail.net